

세계의 결핵비상

편집부

1993년 4월 23일 세계보건기구의 결핵관리 자문위원회는 최근 결핵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고요약서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공중보건면으로 보아 현재 전 세계는 결핵으로 인하여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관리불능상태에 빠졌고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결핵관리방법의 부적절, 다제약제내성, 에이즈와의 상승작용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결핵 발병률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긴급히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결핵을 전 세계 보건문제의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한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원국의 국가보건예산 선정에서 경시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나라도 이 병에 대해서 안심

하고 있을 수가 없다. 단일 감염성 질환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 이상이 현재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다.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각기 자기 나라 안에서 결핵이 퍼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렇게 되면 매우 위험하고 또 이의 관리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결핵 발병은 생기지 말아야 할 일종의 비극이다. 중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여건하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과 의료기술을 잘 이용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90% 이상의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미국 돈 3달러로 한 사람당 1년간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염성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결핵관리방법을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결핵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결핵감염발병을 예방하는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핵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공공단체와 사립기관의 연대가 필요하다. 정부, 민간 기구, 실업계, 난민구호단체, 의료기관 및 기타 국제연합 산하의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결핵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첫째, 각 나라마다 효과적으로 결핵관리방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효과적인 방안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내성균주 출현을 초래하므로 결핵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다.

둘째, 결핵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괄된 관리노력을 위해서 각 분야의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세계보건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간의 다각적인 재정지원을 동원해야 한다. 결핵은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된 질병이 아니다. 선진국들도 결핵 근절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핵이란 전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험과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더 효과적인 관리 대책이행과 연구수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려가

결핵과의 싸움에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나
그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결핵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병과의 싸움에 필요한 막대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거나 간에 각 정부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많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후원단체와 민간기구들이 세계의 결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실행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나라의 결핵관리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본 위원회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오는 10년 이내에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결핵근절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향후 2년간 약 2천만 달러(약 160억 원)의 예산을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결핵과의 싸움에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나 그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더 이상 결핵문제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 된다. 결핵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